

vol.132

언론 사람

언론중재위원회 NEWS

Special News

언론중재위원회 제주토론회 개최

Interview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성낙인 위원장

2011. June

6



2011.

6

CONTENTS

03



이달의 주요뉴스

언론중재위원회 제주토론회 개최

04



인터뷰-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성낙인 위원장

“콘텐츠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있어야”

06



위원단상

한국 축구의 두 얼굴

07

직원마당

나와 강아지와의 사연

08

심의회기

원산지를 알려주세요!

09



기고

백문이 불여일견? 백필이 불여일사!

10



이일환의 음악의 발견

유재하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11



이런얘기 저런얘기

‘홍대스러움’을 지켜주세요

12

위원동정

13

위원회 소식

14

위원회 통계현황



국민과 언론을 이어주는-

언론중재위원회

발행인 권성 편집인 김용주 발행일 2011년 6월 10일 등록 2009년 12월 7일 서울중, 라00325

발행처 언론중재위원회(서울 중구 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빌딩 15층) TEL (02)397-3114, 3000 FAX (02)397-3069 홈페이지 www.pac.or.kr

편집 (주)노마드월드와이드 출력 (주)삼진CNP 본지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손해배상청구가 언론조정신청의 대세”

‘제주지역 조정신청대상 보도기사의 뉴스구조 특성’을 주제로 제주지역 토론회 개최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는 지난 5월 13일 제주 KAL호텔에서 제주지역 언론계와 학계, 법조계 인사 65인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지역 조정신청대상 보도기사의 뉴스구조 특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발제자로 나선 제주대 언론홍보학과 최낙진 교수는 1989년부터 2010년까지 언론중재위원회 제주중재부에 접수된 조정사례의 분석을 통해 “최근에는 언론조정신청에 있어 정정이나 반론보도청구보다 손해배상청구가 대세를 이루고 있으며, 향후에는 이러한 추세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교수는 제주지역에서 조정신청대상이 된 기사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일간지의 경우 기자의 주관적 판단이 포함되는 ‘가치부여’형 기사의 비중이 타 매체에 비해 높다고 밝히고, 이는 사회고발 기능이 우선시되는 일간지의 관행에서 연유하지만 개인을 상대로 한 기사의 경우 인격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최 교수의 분석에 의하면 수사결과 발표 전에 확인되지 않은 혐의사실을 보도하거나 기사에서 일방의 의견만을 전달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교수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제주지역 언론들의 뉴스 취재방식이나 기사작성 등에 있어 검토와 성찰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제주지역의 조정신청건수가 타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이유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제주 YWCA 백진주 사무총장은 “제주지역의 조정신청이 저조한 것은 지역민에게 언론중재제도가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기자협회 위영석 회장은 “제주지역에서 조정사건이 적은 것은 언론중재위원회에 민원이 제기되기 전에 언론사가 고충처리인 제도를 활용하는 등 언론사와 민원인 간의 사전조율을 통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CBS 제주방송 민경중 본부장은 “언론사는 조정신청이 제기되는 것을 꺼리지만, 향후 국민들의 인격권 보호의식이 발전함에 따라 조정신청건수의 증가세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언론사가 ‘자문변호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시스템을 통해 정정이나 반론보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부터 언론조정신청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시점에 개최돼 제주지역 언론계와 학계, 법조계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콘텐츠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있어야”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성낙인 위원장

2011~

(現)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1999~

(現)서울대 법학과 교수

2008~

(現)한국법학교수회 회장

2004~200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1991~1997

대구중재부 중재위원

1980~1999

영남대 법학과 교수



콘텐츠와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 27일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했다. 초대 위원장으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이자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인 성낙인 교수가 선임되었다. 언론중재위원회 대구중재부에서 6년간 중재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한 성낙인 위원장은 당시의 경험이 분쟁해결의 노하우를 체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위원회에 애정어린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Q.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콘텐츠는 21세기 지식성장동력의 전략산업입니다. 이를 위해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라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한국게임산업진흥원, 문화콘텐츠센터,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디지털콘텐츠사업단 등 여러 기관을 통합해 2009년에 한국콘텐츠진흥원을 만들었지요. 이후 콘텐츠 거래와 이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고 콘텐츠 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저작권위원회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있지만, 콘텐츠라는 독자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거죠.

Q.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크게 네 개 분과로 분류됩니다. 게임을 담당하는 1분과, 에듀테인먼트를 담당하는 2분과, 방송영상을 담당하는 3분과, 그리고 기타분야인 4분과로 나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음악, 공연, 미술,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광고, 패션, 공예품, 데이터베이스 등을 담당하는 기타 분과가 더 중요하게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발전 가능성이 무척 큰 분야이지요.

Q. 콘텐츠 분야에 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우리 헌법에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으로 못을 박아 놔는데, 외국에는 그런 예가 없습니다. 영미권은 배심제이고 독일, 프랑스는 참심제입니다. 국민들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해서 결정 내리면 그것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법에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배심원 판결에는 권고적 효력밖에 없어요. ADR* 제도는 이런 헌법의 틈을 보완할 수 있는 훌륭한 대안입니다. 앞으로 ADR제도가 보다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도 ADR제도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각 분과의 특성을 고려해 전문가들을 배치시켰습니다. 게임, 에듀테인먼트, 애니메이션 같은 분야는 법률가들이 잘 모르잖아요.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되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해 당사자에게 제

시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분쟁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지요.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분쟁을 조정절차로 해결하면 심리적 부담도 줄일 수 있고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도 매우 경제적입니다. 법률에 익숙하지 않은 콘텐츠분야 종사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소송을 통하지 않고 조정이나 중재 등을 거쳐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언론중재위원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저작권위원회 등이 ADR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Q. 언론중재위원회에서 6년간 중재위원으로 활동하셨는데, 그 경험이 도움이 되시지요?

언론을 상대한다는 것은 상당히 예민한 작업입니다. 그런 면에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많은 케이스를 다루면서 노하우를 쌓았지요. 언론중재제도가 도입된지 30년이 됐는데, 언론중재위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국민적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나라도 좋은 제도는 수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분쟁해결의 세계적인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전 세계에 유래가 없는 제도인 만큼 보다 신중한 운용이 필요합니다. 일례로 언론중재법에 보면 반론보도보다 정정보도청구권이 먼저 명시가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반론보도청구권이 먼저 명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언론중재제도는 반론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거든요. 반론보도를 먼저 명시하고 나머지는 이에 준한다고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Q. 끝으로 독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콘텐츠는 21세기 성장산업입니다. 2005년도에 우리 콘텐츠산업 매출규모는 57조였는데, 2009년도에는 67조였다고 합니다. 매년 5% 정도 성장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성장하다 보면 분쟁이 생기는 일도 빈번해집니다. 법률가도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해결이 쉽지가 않은데, 법에 익숙하지 않은 콘텐츠산업 종사자들이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자주 겪게 되면 콘텐츠산업 발전에 치명적인 타격이 오는 것이지요. 이걸 단순히 개인의 권리 차원보다는 국가 전체적인 성장동력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있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콘텐츠 산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가 아닌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인터뷰 및 사진 / 남승균(홍보팀)



한국 축구의 두 얼굴

양은경 위원
대전중재부
충남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조간신문을 펼치니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우승컵을 치켜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박지성이 큼직하게 1면을 장식하고 있다. 방송에서도 박지성이 블랙풀을 상대로 선제골을 터뜨리면서 팀 우승을 이끌었다는 보도 일색이다. 이제 언론의 관심은 온통 맨유와 바르사가 맞붙는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모아진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박지성의 출전 여부와 활약에 대한 관심이다.

맨유의 우승과 챔피언스리그 얘기로 꽃을 피우던 언론이 또 하나의 축구 소식을 전한다. K리그 선수들이 스포츠 도박에 연루되어 돈을 받고 일부러 경기에 저주했다는 것이다. 구속된 선수들을 보니 전 국가대표 출신도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팀인 대전시티즌 선수도 포함되었다. 박봉에 시달리던 선수들이 스포츠 도박 브로커들의 유혹에 넘어갔다고 한다.

얼핏 아무 관련 없어 보이는 상반된 두 뉴스를 접하면서 한국 축구의 두 얼굴에 대해 생각해본다. 우승컵을 들어 올린 박지성 옆으로 우리에게 친숙해진 글로벌 스타들, 루니, 깁스, 오웬, 안데르손이 눈에 들어온다. 이 한 장의 사진은 한국축구가 유럽 축구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발전했다고 말해주는 것일까. 그렇다면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말하는 축구 경기에서 각본에 따라 골을 먹고 지는 경기를 하다가 적발된 K리그 선수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한국 축구를 말할 때 2002년 한일 월드컵을 빼놓을 수는 없다. 한국 축구를 둘러싼 많은 것들을 바꾸어놓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한일 월드컵 이전에도 차범근처럼 해외리그에서 활약한 선수가 없진 않았지만, 월드컵 이후 몇몇 한국 선수들이 유럽의 프로리그들로 이적하면서 축구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도 덩달아 세계무대로 넓혀졌다. 방송에서 유럽 명문 클럽들의 경기를 생중계로 볼 수 있게 되었고, 모든 언론들이 해외 진출 선수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뉴스로 전해주었다. 우리에게 이름조차도 생소했던 명문 클럽들이 국내에서 광범위한 팬층을 확보하게 되었다.

해외 프로리그에서 뛰는 한국선수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뜨거운 반응의 저변에는 강한 민족주의의 전통이 있다. 하지만 이런

반응이 우리 사회 내부에서 만들어지고 뿌리내린 것만은 아니다.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이 주도하는 글로벌 스포츠 산업은 포화상태에 이른 자국 시장을 벗어나 새로운 고객 확보를 위해 아시아 시장을 일순위로 올려놓았다. 유럽의 명문 클럽들이 아시아의 뛰어난 선수들을 사들이는 것은 아시아 국가들의 민족주의를 이용하는 시장 확장의 중요한 전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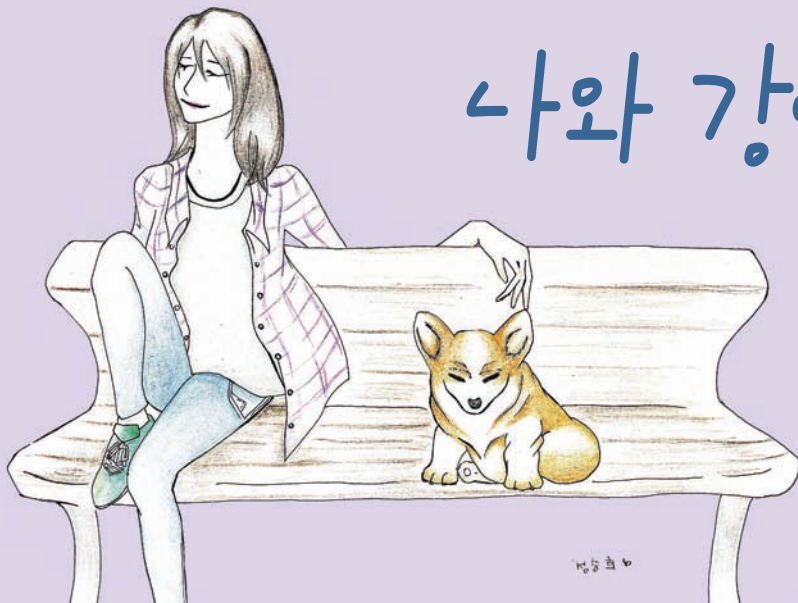
영국에서보다 아시아에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생중계를 보는 시청자들이 더 많아졌다. 프리미어리그 2011-2013 시즌 해외중계권료 수익만 12억 파운드(2조 124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스페인 프리메라리가나 이탈리아 세리에A 같은 다른 리그까지 합치면 유럽 프로리그들이 해외에서 거둬들이는 수익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가 될 것이다.

해외 프로리그들이 들어오면서 축구를 즐기는 방식도 많이 달라졌다. 박지성의 맨유 경기를 보는 한국 사람들 대부분은 맨유 홈구장인 올드 트래포드는커녕 유럽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다. 티브이를 통해서 보는 축구는 경기장에 직접 가서 보는 축구와는 아주 다른 문화적 경험이다. 우리는 이제 거실에 앉아 천문학적인 몸값의 스타 군단들이 펼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경기를 감상한다. 선명한 화질의 TV를 통해 클로즈업과 슬로우 모션의 현란한 카메라 기술들이 빚어내는 드라마틱한 스펙터클에 점점 더 길들여지고 있다.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홈팀이라도 끈끈한 충성심으로 매주 경기장을 찾고 그렇게 한 곳에 모인 관객들이 하나가 되어 목이 터져라 응원하는 축구문화는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세상이 변했으니 사람들의 취향도 변한다고 한다. 월드컵 같이 몇 년에 한 번씩 열리는 글로벌 이벤트에서 선전하고 있는 한국 선수들을 보면서 한국 축구는 발전하고 있다고 말한다. 더 많은 선수들을 유럽 리그에 보내서 선진 축구를 배워 와야 한다고도 말한다. 그렇지만 유럽 리그에 진출한 한 줌의 선수들에 쏟아지는 과도한 사회적 관심의 그늘에서 한국의 풀뿌리 축구는 시들어가고 있다. 지역에 뿌리 내린 축구 문화 없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제2, 제3의 박지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일까.

나와 강아지와의 사연

정 승 희
홍보팀



바늘구멍보다 더 좁다는 취업문을 뚫고 성공한 이들에게 “앞으로 무얼 하고 싶으냐”고 묻는 것만큼 행복한 질문은 없을 것이다. 이제 막 언론중재위원회에 입사한 나에게도 꼭 대답하고 싶은 소원이 하나 있다. 사회생활에 입문해 내가 이루고 싶은 첫 소원은 바로 ‘강아지 기르기’이다. 너무 시시하다고 비웃을 수 있겠지만, 남다른 에피소드를 갖고 있는 나에게 강아지란 오묘하고 애뜻한 그 무엇이다.

30년 동안 애견훈련소를 운영하고 계시는 아버지를 둔 덕분에 내 주변에는 항상 개들이 있었다. TV에 나오는 멋진 개들이 집에 있다는 건 부러워할만한 일이었으나, 나에게는 그저 단조로운 일상일 뿐이었다. 그러던 중, 내가 중학생일 때 엄마가 콩알만한 푸들 한 마리를 집에 데려오셨는데, 나는 그 개의 첫인상부터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왜냐하면 훈련견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견사에 있는데, 이 푸들만 특별대우를 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어쨌든 푸들은 뜨끈한 안방을 차지하고 가족들과 같이 생활하게 되었다. 그런데 내 눈에 거슬리는 게 하나 더 있었다. 나는 푸들이 밥상머리에 앉아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는 게 상당히 못마땅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께서 훈련을 시킬 때 사람과의 상하관계를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을 보아왔기에 푸들이 하는 행동은 감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 푸들은 엄마의 권세를 업고 눈치를 살살 보며 계속 음식을 얻어먹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푸들의 간신배 같은 행동은 다양해지고 사람과 비슷해졌다. 그러나 간 큰 푸들은 내 눈에서 불똥이 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푸들을 괴롭힌 것은 아니다. 그다지 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푸들이 잘못을 하더라도 곧 잊어버렸다. 물론 누적은 되고 있었지만 말이다.

거의 5년 동안 평안히 살아온 푸들은 어느 날 나와 집에 단둘이 남게 되었다. 그 날 푸들은 운이 좋지 않았다. 나는 입시로 인해 스트레스가 정점을 찌르고 있었고 부모님과과는 냉전 중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날엔 안 그래도 눈엣가시 같았던 푸들이 좋게 보일 리가 없었다. 나는 성가신 푸들을 화장실에 넣어놓고 꾸역꾸역 공부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잠시 쉬러 거실에 나와 보니 푸들이 화장실에서 나와 온통 방정스럽게 불일을

본 것이 아닌가? 눈앞이 허예졌다. 내 인생에서 정신 줄을 놓은 유일한 순간이었다. 나는 너무 화가나 푸들을 손으로 세계 때려 버렸다. 딱 세 대. 그리고 스트레스를 견딜 수 없어 펄펄 울어버렸다. 푸들은 너무 놀라 구석으로 도망가 버렸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있는데 푸들이 벌벌 떨면서 나를 향해 오는 것이 아닌가? 누구에게 혼나면 그 근처도 안가는 푸들이 이성을 잃은 내 모습을 보고도 말이다. 나에게 맞은 곳이 부은 채로 푸들은 내 앞에서 내 눈을 멀거니 쳐다보았다. 순간 나는 당황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그 때 갑자기 아버지께서 ‘개는 다른 동물과 다르단다. 개는 사람의 마음을 알거든.’이라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났다. 그러자 ‘이 녀석이 내 맘을 알고 위로하려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동시에 미안한 마음이 밀려 오기 시작했다. 나는 놀라서 부들부들 떠는 그 녀석을 안고 한참을 더 울었다.

그 날 이후 나는 개를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다. 전에는 개를 동물의 일종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개를 조금 특별한 동물이라고 생각한다. 그날 무서움을 참고 내 곁에 와준 푸들처럼 훈련소에 있는 개들을 보면 처음에는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해도 그 안에 내포된 감정을 통해 배우는 것 같았다. 사람과 교감할 수 있는 동물. 그래서 나는 개가 좋아졌다. 어쩌면 내가 강아지를 새로 기르게 되면 이런 에피소드는 생기지 않을 지도 모른다. 이젠 강아지와 대화하는 법을 알게 됐으니까. 하지만 이젠 나를 제일 좋아해주는 내 강아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말을 하지 못하지만 내 곁에 묵묵히 있어주고 나도 그 옆에 있고 싶은 그런 강아지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은 아직 수습이라 강아지를 키울 여건이 안 되지만 ‘열심히 일해서 꼭 내 강아지를 키우고 말리라’고 매일 의욕을 불태우고 있다.

원산지를 알려주세요!

김 정 민
기사심의팀

‘오늘은 큰 맘 먹고 저녁 반찬으로 쇠고기나 구워볼까?’

결혼 2년차 주부답게 정육코너 앞에서 산지는 어디인지, 가격은 합리적인지를 따져본다. 이것저것 따져보고 고심 끝에 고른 한우 한 점을 프라이팬에 ‘치직~’ 하고 구웠는데... 옹! 이럴 수가, TV 뉴스에 흐르는 앵커의 멘트,

“최근 대형마트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던 일당이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지난 4·27 재·보궐선거를 앞둔 유권자의 심정이 바로 쇠고기의 원산지를 따져보는 소비자와 같지 않았을까? 국회의원 3곳, 도지사 1곳 등 총 38개 선거구에서 치러진 2011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심의 향방을 판단하는 풍향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의 많은 관심 속에 치러졌다. 때문에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각종’ 여론조

사 결과를 인용한 판세 분석 기사가 쏟아졌는데 문제는 ‘각종’ 여론조사의 결과가 제각각 달랐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그 ‘각종’ 여론조사의 결과는 실제 선거결과와도 많은 차이가 있었다.

지난 2월 26일 출범한 2011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5월 27일까지 총 6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25건의 선거기사에 대해 제재결정을 내렸는데,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가 20건으로 여론조사관련 보도에 대한 제재건수가 무려 80%를 차지했다. 또, 여론조사 보도로 제재를 받은 언론사는 모두 타 언론사나 조사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그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였다.

공직선거법은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때에는 조사 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함께 보도하여야 한다고 정하

고 있다.(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 이는 여론조사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는 한편,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표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유권자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이러한 법 취지를 고려하여 타 언론사나 여론조사기관에서 발표한 여론조사를 인용 보도할 경우에는 최소한 원 보도 매체 및 여론조사기관, 실시일자 등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보고 있다.

원산지가 쇠고기의 품질과 맛을 좌우하듯, 여론조사의 출처와 그 결과는 유권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컵에 반쯤 담긴 물을 ‘반이나 남았다’고 할지, ‘반밖에 안 남았다’고 해석할 지는 개개인의 판단에 달린 것처럼 말이다. 선거관련 여론조사 보도가 유권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돕는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원산지, 즉 여론조사의 출처를 분명히 밝히는 보도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

이달의
책

뉴스론:미디어 사회학적 연구

이강수 지음 | 나남 | 656페이지



이강수 한양대 명예교수가 정년퇴직 12년 만에 뉴스의 본질을 심층 분석한 책 '뉴스론 : 미디어 사회학적 연구'를 출간했다. 종래의 저널리즘분야가 신문이나 방송의 실무교육에 중점을 두어왔던 것과는 달리 이 책은 뉴스의 본질을 연구하는 데 집중한다.

저자는 뉴스에 대한 다양한 국내외 문헌을 연구하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특히 크림전쟁 이후 베트남전과 포클랜드전, 그라나다 침공, 아프가니스탄전, 걸프전, 이라크전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적 전쟁들과 미디어와의 관계를 살피고 있다.

또한 테러리즘을 전달하는 매스미디어의 퍼포먼스를 고찰하고, 인종주의와 뉴스라는 챕터를 통해 중동지역에 대한 구미제국 주류 미디어들의 보도태도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최근의 인터넷 미디어산업의 동향과 더불어 뉴스에 관한 다양한 이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도 담았다.

백문이 불여일견? 백필이 불여일사!

나는 백필이 불여일사(百筆이 不如一寫)라는 말을 좋아한다. ‘한 장의 사진이 백 마디의 말을 대신 한다’라는 뜻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옛말을 패러디한 이 말은 사진의 영향력을 강조하는 말로 주로 쓰이는데, 보도사진가와 그와 비슷한 일을 하는 사진가들에겐 최고의 찬사이기도 하다. 기자 시절 신문에 실리는 사진기사에 대한 나의 자부심과 애정은 이 한마디로 대변되곤 했다.

과거 나는 사진과 펜(글쓰는 기자를 가리키는 속어)을 망라한 후배기자들에게 ‘백필이 불여일사’를 집요하게 주입하곤 했었다. 사진기사가 전체 신문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피가 끓는 심정으로 말하다 보니 가끔 과도하게 강요하기도 했었다. 펜기자들은 아무래도 백자의 글이 한 장의 사진보다 못하다는 나의 태도에 자존심이 상했었나보다. 하루는 까마득한 후배 한 명이 “선배, 그건 아닌 것 같아요”라며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신문사에서 후배가 선배에게 대드는 경우는 별로 없다. 신참내기인 후배가 그렇게 대드니 마음 한편으로 ‘요놈 봐라’ 하는 마음도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내가 혹시 이들의 자존심을 너무 건드렸나 하는 마음에 나중엔 “그래, 네 말도 일리가 있다”며 후배의 의견에 맞장구를 쳐주기도 했다.

나중에 훌륭한 중견기자로 성장한 그 후배가 자신의 후배를 교육하는 모습을 보게 됐다. 그 후배가 자신의 후배에게 하는 말, “백필이불여일사. 기자가 현장에서 사진도 고려하면서 취재를 해야지”하는 것 아닌가. 훗날 그 후배에게 왜 그런 말을 했냐고 물었더니 “선배랑 다니면서 사진기자들도 펜기자들처럼 현장에서 자신만의 기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는 걸 알았거든요”라고 대답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더욱 자신감을 얻었고 ‘백필이불여일사’라는 말을 더 자주 사용하게 됐다.

사진기자로서 자존감 갖고 일하기 위한 자구책

어찌 보면 ‘백필이불여일사’는 펜기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수인 사진기자로서 자존감을 갖고 일하기 위해 나름대로 만든 자구책에 더 가까웠다. 마치 조선시대 문관과 무관의 차별이 존재했듯 펜기자와 사진기자에 대한 차별적 시각은 존재한다. 사진기자가 펜기자에 비해 홀대 받던 시절도 있었다. 오죽하면 80년대 군사독재시절 한 신문사의 기자들이 인터뷰 취재를 다녀온 뒤 존지를 받았는데 펜기자에 비해 사진기자에게

주어진 존지액수가 작은 걸 본 선배 사진기자가 눈은 반쯤 감기고 권위적으로 나온 인터뷰이의 사진을 골라 신문에 내는 것으로 앙갚음을 했다는 우스갯소리가 나돌았겠는가.

사진기자에 대한 차별적인 시각은 드라마에서도 종종 비쳐진다. 주인공인 미모의 여기자가 “선배, 갑시다”라고 얘기하면 배 나오고 어리바리하게 생긴 남자 사진기자가 뚱뚱하고 각진 카메라 가방을 어설픈 메고는 “어딘데?”라고 되묻는다. 이에 여주인공 기자는 “가보면 알아요”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현실과는 매우 거리가 먼 얘기다. 현실이었다면 그 여기자는 다음부터 사진기자와 같이 일할 기회가 없어질 공산이 크다. (물론 내 주변엔 배우 김태희 정도의 미모를 가진 기자가 그런다면 봐줄 수도 있다는 동료가 있긴 하다.)



① 스페인 내전과 2차세계대전, 베트남전쟁까지 종군했던 로버트 카파라는 불세출의 사진가가 있었다. 기자회견장의 수많은 사진가들 중 태반이 로버트 카파의 드라마틱한 인생을 꿈꾸며 카메라를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카파처럼 사진찍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걸 아는 건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카파의 전쟁터에서의 죽음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도 한 순간이다. 그래도, 사진가들은 이상을 기록한다. 묵묵히.

② 한 사진기자가 조끼로 노트북의 눈부심을 막으며 현장에서 사진을 전송하고 있다.

만약 신문에서 사진이 빠진다면?

보도사진의 역할을 살피기 위한 전제 치곤 조금은 치졸한 얘기였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라! 만약 매일 아침 만나게 되는 신문에 사진이 한 장도 없다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글만 잔뜩 배치되어 있다면! 신문은 아마도 점심에 배달 온 자장면 그릇을 감싸는 종이로 전락할 것이고 컴퓨터 앞에 앉아 기사를 검색하는 시간 역시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다. 보도사진의 중요성에 대해 얘기하기 위해 펜기자들을 더 화나게 해서는 안 되겠다. 여전히 펜과 사진은 많은 형태의 뉴스에서 함께 일해야 한다. 그것이 좋은 뉴스와 좋은 사진을 위한 일임을 서로는 알고 있다.

민원기
前데일리 서프라이즈 기자
前경기도청 홍보기획관실
프리랜서 사진가





이일환의 음악의 발견

유재하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이일환(음악방송 Satio PD)

영국의 저명한 음악평론가 사이먼 레이놀즈는 <가디언>지에 발표한 글에서 팝음악의 20년 주기 리바이벌을 이야기한 바 있다. 1950년대의 록큰롤을 리바이벌한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20년의 시간차를 두고 '복고 쌍둥이(Retro Twin)'가 발견된다는 것이다. 아마 2000년대의 음악이 좀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다면 이 가설이 성립되지 않았겠지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2000년대의 음악은 1980년대 팝음악에서 너무 많은 것을 가져다 썼다. 그렇다면 앞으로 10년은 1990년대의 재현이 될까? 앞으로의 10년이 1990년대 음악의 복고 쌍둥이가 될지 아니면 20주기 가설을 비롯한 전혀 새로운 음악을 들려줄지는 지켜보면 된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발표된 토마스 쿡의 앨범 「Journey」는 어떤 조짐을 보여준다. 대표적인 인디뮤지션인 토마스 쿡(정순웅)이 1990년대의 스타 김동률을 프로듀서로 영입해서 짝을 이뤄 만든 앨범이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앨범은 1990년대 초에 라디오와 대학가를 주름 잡았던 언더그라운드 계보에 넣을만한 음악을 들려준다. 김동률의 전람회를 떠올리는 사람도 적지 않다. 인디음악은 지금까지 외견상 1970년대의 그룹사운드의 음악과 더 친해왔다. 그런데 이제는 1990년대의 복고 쌍둥이도 흥대 앞에 등장한 셈이다. 물론 1990년대 음악과 인디음악의 동거는 이전에도 있었다. 인디음악이 세상으로 나가는 길목을 지키는 수문장이나 다름없는 유희열은 페퍼톤스나 루시드 폴과 같은 인디 뮤지션들을 자신의 레이블에 영입하여 일가를 이루고 있다. 평론가들도 윤상, 이승환, 오태호, 유희열과 같은 90년대의 싱어 송라이터가 만든 가요의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앞에 등장한 1990년대의 복고 쌍둥이가 일회적인 사건으로 끝날 것 같진 않다.

지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1990년대 복고 쌍둥이는 누가 낳은 것일까? 김현철, 윤상, 이승환, 오태호, 유희열, 김동률을 거슬러 더 위로 올라가면 그 시작에는 유재하가 있다. 유재하는

세션으로 활동하다가 1987년 「사랑하기 때문에」 단 한 장의 앨범을 발표하고 불의의 교통사고로 요절한 가수다. 그러나 한국 대중음악사에서 이처럼 영향력을 행사한 앨범은 찾아보기 어렵다. 유재하는 가수로 데뷔할 생각은 없었다고 전해진다. 이미 조용필을 통해서 발표된 <사랑하기 때문에>를 제외한 이 앨범의 모든 곡은 김현식 4집을 위해서 작곡되었는데 김현식이 <그대 내 품에> 한 곡만을 채택하는 바람에 유재하가 화가 나서 솔로 앨범으로 만들었다는 후문이다. 기억하는 분도 많겠지만 당시 이 앨범은 일종의 센세이션이었다. 클래식 전공자다운 화려

한 화성과 풍성한 사운드와 현악 편곡, 짧은 호흡으로 내뿜는 보컬은 유약하지만 감성적인 호소력으로 당대를 사로잡았다. 여기에 인생에 대한 통찰을 평이한 언어로 담아낸 덕에 소년, 소녀들의 노트나 편지에 옮겨지기에 충분할 정도로 시적인 노랫말의 매력도 빼놓을 수 없다. 유재하의 음악은 여러모로 전혀 새로운 음악이었다.

유재하 음악의 정서가 가장 잘 드러나는 곡은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이다. 체념조



의 보컬과 이에 동조된 신시사이저가 쓸쓸하면서도 텅 빈 느낌을 자아내는 이 곡은 맘처럼 되지 않는 세상 혹은 사람과의 관계를 소재로 하고 있다. 젊음의 키워드가 '용기'나 '도전'이 되어버린 요즘 세대와는 달리 유재하는 '실패', '후회'로 채워진 젊음을 말하고 있다. 원래 젊음은 실패와 후회로 채워진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음악은 후회와 체념에 함몰되지 않는다. 체념조로 쓸쓸하게 시작된 이 곡은 2절의 후렴구가 끝나고 등장하는 신시사이저의 간주를 계기로 한결 단호해진 어조로 변모한다. 쓸모없어 보이는 후회와 방황도 우리 인생의 커다란 동력이라는 듯이 말이다. 이 곡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닐까? 세상에 쓸모없는 젊음이란 없다는 것, 원래 젊음은 실패, 후회, 방황으로 채워지기 마련이라는 것, 그것을 긍정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 말이다.

‘홍대스러움’을 지켜주세요

홍보팀
박경미



“오늘 오후 7시에 홍대에서 보”

금요일 저녁, 친구와 약속을 잡는다. 그러나 친구를 만나는 장소는 홍익대학교 정문이 아니다. 약속장소인 ‘홍대’는, 정확히 말하면 ‘홍대 앞’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활기차고 창조적인 곳이 어디냐는 질문에 “홍대”라고 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인디음악과 그라피티, 유니크한 느낌의 빈티지 옷가게는 물론 세계 각국의 가정식 같은 독특한 먹거리까지, 홍대 앞은 유행의 최전선이다.

몇몇 카페들이 있던 홍대 인근에 사람이 몰려들기 시작한 것은 90년대에 클럽문화가 자리잡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2001년 클럽데이가 도입되면서 클럽문화가 대중화되고 2002년 월드컵을 기점으로 유동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홍대 앞은 급속도로 발전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홍대 앞의 범위도 점점 넓어졌는데, 예전에는 홍대 앞이라고 하면 행정구역상 서교동, 동교동 정도였지만 이제는 상수동, 당인동, 합정동, 망원동까지도 홍대 앞으로 통칭되고 있다.

그런데 염려되는 것은 이렇게 상권이 커지면서 거대자본이 홍대로 유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몇 년 사이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중심가를 차지해 버리고, 나이트클럽의 호객행위가 성행하는 요즘의 홍대거리는 유쾌한 곳만은 아니다. 예전부터 홍대에 자리 잡고 있던, 작지만 개성있는 가게들은 높아지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외곽으로 하나둘씩 터전을 옮기고 있고, 홍대문화를 만들어 온 젊은 예술가들도 갈 곳을 잃고 홍대를 떠나야 하는 형

편이다. 가난하지만 재기발랄한 예술가들이 모여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그런 문화에 매력을 느낀 사람들이 모여 특화되었던 ‘홍대’가 상업화되면서 이제는 역으로 그 문화를 일궈낸 주역들이 쫓겨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photo by 점쟁이



홍대 앞 상업화의 부작용은 다른 곳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올해 초 클럽문화협회가 지난 10년간 홍대문화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클럽데이의 잠정적 종단을 선언했다.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밤이면 한 장의 티켓으로 라이브 음악클럽 18곳을 원하는 대로 오갈 수 있는 음악축제였던 클럽데이를 중단하는 극한 조치를 취하게 된 이유는 그 동안 클럽데이가 홍대 앞의 상업화 흐름에 일조했다는 지적과 함께 클럽문화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제기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5개월 동안의 자기반성을 마치고 6월부터 재개되는 클럽데이가 그들이 밝힌 것처럼 앞으로 문화예술과 상업이 융합되는 창조문화산업의 가능성을 화두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 홍대는 ‘홍대스러움’을 잃지 않을 때에야 비로소 빛나기 때문이다.



COMMISSIONER



▶ 권성 위원장 대한민국 나눔대상 주관

권성 위원장은 5월 26일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2011 대한민국 나눔대상 시상식을 주관했다. 공동대회장을 맡은 권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충익인간 정신은 나눔의 정신을 구현하는 우리의 철학이라고 생각한다”며 사회 각지에서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한국영화감독협회 정진우 이사장을 비롯한 수상자 46인의 노고를 치하했다.



▶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1기생 위원회 방문

스승의 날을 맞아 지난 5월 18일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1기생 8명이 권성 위원장을 방문했다. 권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과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예비 법조인들이 언론중재제도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 위원장은 2008년 1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대 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 서울지방법원사회 사진동호회 춘계촬영대회

정상용 위원(서울제2중재부, 변호사)은 서울지방법원사회 사진 동호회 회장을 맡아 5월 7일 경복궁에서 촬영대회를 열었다.



▶ 한국언론학회 봄철 정기 학술대회 세미나 참석

손영준 위원(서울제3중재부, 국민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은 5월 13일 한국언론학회 봄철 정기 학술대회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손 위원은 ‘신문 수용자 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발제를 맡아 “구독률, 열독률 수치조사보다 의제설정기능과 같은 신문의 가치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한국언론학회 ‘EBS 역할과 바람직한 재원구조’ 토론회 사회

한군태 위원(서울제5중재부, 경희대 정경대학 학장)은 5월 13일 한국언론학회가 주관하는 ‘다매체 다채널 시대, 공영방송 EBS의 역할과 바람직한 재원구조’ 토론회의 사회를 맡았다.



▶ 로스쿨 ‘고시학원화’에 대해 인터뷰

한부한 위원(서울제6중재부, 변호사)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평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국경제와의 인터뷰를 가졌다. 한 위원은 인터뷰에서 ‘고시학원화’ 논란을 빚고 있는 일부 로스쿨에 대해 “고시학원 강사를 모셔다가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것은 로스쿨 도입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 광주교육대, 전통 방식 성년의 날 행사 개최

박남기 위원(광주중재부, 광주교육대 총장)은 5월 16일 광주교육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제39회 성년의 날 행사를 전통 방식으로 개최하고 성년이 된 400여명의 학생들에게 축하했다.



▶ ‘근본적 신문지원정책 도입촉구를 위한 연속토론회’ 참석

김덕모 위원(광주중재부,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은 5월 3일 한국언론노조와 한국기자협회가 개최한 ‘근본적 신문 지원 정책 도입촉구를 위한 연속토론회’ 참석하여 종합편성채널의 신문 광고 시장의 교란을 막을 것을 촉구했다.



▶ 수원가정법률상담소와 협약식 외 위철환 위원(경기중재부,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은 5월 14일 한국반부패정책학회가 주최하는 ‘재외공명선거 세계 한민족선언 준비위원회’에 참여했다. 또 17일에는 수원가정법률상담소와 업무교류 및 공동사업 수행을 위한 협약식을 맺었다.



▶ 2011 디지털 케이블 TV쇼 컨퍼런스 참석

한진만 위원(강원중재부,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은 5월 13일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린 2011년 디지털 케이블 TV쇼 컨퍼런스에서 ‘중편, 콘텐츠 활성화 기폭제 되나’를 주제로 한 섹션의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 전주지방법원 본·지원 법관 워크숍 발표

심병연 위원(전북중재부, 변호사)은 전(前) 전북지방법원사회 회장으로서 5월 11일 열린 전주지방법원 본·지원 법관 워크숍에 참석하여 ‘변호사가 바라본 재판’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연평도 봉사활동 실시



위원회는 5월 21일부터 이틀 동안 북한의 포격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연평도 주민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권성 위원장과 정학철 부위원장을 비롯한 중재위원 및 사무처 직원 등 13명의 봉사단은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소속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독거노인 6가구에 후원물품을 전달하고 주택수리, 도배, 장판교체 등 생활환경 정비작업을 벌였다. 권성 위원장은 "이번 봉사활동이 연평도 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복구하는 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의 그늘진 곳을 찾아 어려운 이웃을 돕는 활동을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계간 「언론중재」 여름호(제119호) 발간

위원회는 오는 6월 30일 계간지 「언론중재」 여름호를 발간한다. '오래된 기사의 인터넷 유통과 '잊혀질 권리''를 주제로, 과거 기사의 인터넷 유통과 피해현황, 잊혀질 권리를 둘러싼 국내외 동향 등에 관한 내용이 수록될 예정이다.

2010 언론관련 판결 분석 보고서 발간

위원회는 대법원 등 각급 법원이 2010년 선고한 언론관련 민사판결을 대상으로 소송형태와 판결경향 등을 분석한 「2010 언론관련 판결 분석보고서」를 6월 30일 발간할 예정이다. 분석보고서에는 2010년 언론관련 민사판결을 대상으로 소송제기현황, 처리결과, 손해배상청구액과 인용액 등이 수록된다.

경기중재부 이전



경기중재부는 5월 25일 사무실을 이전하고 30일 전·현직 중재위원과 경기문화재단 권영빈 대표이사를 초청해 개소식을 열었다. 새로운 사무실은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번지 경기문화재단 8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수원 뉴코아아울렛, 자유총연맹 또는 매탄주공 4, 5단지 정류장에서 도보로 3분 정도 소요된다. (경기중재부 (031)211-9022, 9027)

재·보궐선거 선거사심의위원회 활동 마감



지난 2월 28일 출범한 2011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사심의위원회가 5월 27일 3개월간의 활동을 마쳤다. 선거사심의위원회는 재·보궐 선거기간 동안 총 6차례 회의를 개최해 25건의 선거기사에 대해 제재하기로 의결했다.

위원회 장애인 고용비율 법정기준 초과

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부시책에 부응해 3명의 장애인을 채용했다. 위원회의 장애인 고용비율은 전체인원 대비 8.6%로, 공공기관 법정무고용률 3%를 훨씬 상회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의무고용률 준수를 위한 전시행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장애인 직원들이 능력을 발휘하며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강원지역 언론사 대표 초청 간담회 개최



권성 위원장은 6월 3일 강원도 춘천을 방문해 강원지역 주요 언론사 대표와 함께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설명하고 강원지역 언론계와 지역 현상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강원중재부 함종식 중재부장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간담회에는 강원중재부 김길소 위원(전 강원일보 노설주간), 이택수 위원(강원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참석했고, 강원지역 언론사 대표로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대표이사, 이희종 강원일보 대표이사, 김재형 춘천MBC 대표이사, 김영철 GTB강원민방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언론인 출신 중재위원 간담회 개최

권성 위원장은 5월 26일 정학철 부위원장을 비롯한 전직 언론인 출신 중재위원 11인과 효율적인 조정중재업무처리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권 위원장은 언론인 출신 중재위원이 현업 사정에 밝은 만큼, 당시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 피해구제보도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정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언론중재위원회 노동조합 위원장 선출

위원회 노동조합은 지난 5월 24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제13대 위원장으로 여운규(교육팀) 조합원을 선출했다. 신임 여운규 노조 위원장은 "노조원의 의견을 받들어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노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 사무처 인사(2011. 6. 1일자)

[전보] 대구사무소 소장 최승민

2011년 5월, 언론중재위원회는...



● 조정·중재신청 처리 현황

위원회는 2011년 5월까지 모두 853건의 조정사건을 접수·처리했다. 처리결과별로 살펴보면 조정성립 250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47건(동의 33건, 이의 13건, 계속 1건), 조정불성립결정 72건, 기각 11건, 각하 2건, 취하 348건(253건), 계류 123건이며, 피해구제율은 74.9%로 나타났다. 피신청인 매체유형별로는 인터넷신문 28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 252건, 신문 221건, 방송 60건, 뉴스통신 34건, 잡지 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위원회는 5월까지 58건의 중재결정을 내렸다. 청구권별로는 정정청구가 25건, 반론청구 21건, 추후청구 12건으로 나타났다.

조정신청 처리현황

구분 월	청구명	청 구 수	처 리 결 과									피 해 구제율 (%)
			조 정 성 립	직 권 동 의	조 정 이 의	결 정 계 속	조정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계 류	
1~5월	정 정	363	139	20	8	1	36	5	0	135(83)	19	71.6
	반 론	53	26	3	0	0	6	1	0	13(8)	4	77.1
	추 후	90	0	0	0	0	0	0	0	45(44)	45	97.8
	손 배	347	85	10	5	0	30	5	2	155(118)	55	74.7
합 계		853	250	33	13	1	72	11	2	348(253)	123	74.9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피해구제율=피해구제된 건수/조정건수

중재신청 처리현황

구분 월	청구명	청구 건 수	처 리 결 과			
			중재 결정	중재화해 결정	기 각	계 류
1~5월	정 정	25	25	0	0	0
	반 론	21	21	0	0	0
	추 후	12	12	0	0	0
	손 배	0	0	0	0	0
합 계		58	58	0	0	0

● 2011년 상반기 재보궐 선거기사심의 현황

지난 2월 28일 출범한 2011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5월 27일 3개월간의 활동을 마쳤다. 선심위는 총 6차례 회의를 개최했으며 총 25건의 선거기사에 대해 제재하기로 의결했다. 위반유형별로는 '여론조사 보도요건' 조항 위반이 2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정성 및 형평성' 조항 위반이 5건이었다. 결정 내용별로는 주의 21건, 주의 사실 게재 3건, 경고결정문 게재 1건 순으로 나타났다.

● 시정권고 현황

시정권고소위원회는 5월 31일 5차 회의를 열어 자체 심의한 언론보도 중 총 30건의 법익침해 내용에 대해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 침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자살관련보도 15건, 마약용량·용법 등 공개 6건, 피의자 신원공개 5건, 사생활 침해 3건, 성폭력 피해자 신원공개 1건이며, 매체유형별로는 인터넷신문 20건, 뉴스통신 5건, 일간지 3건, 주간지 2건이다.

● 상담 현황

위원회는 5월 한 달 동안 196건의 상담(중복상담 포함)을 처리했다. 상담 처리결과로는 조정절차 안내가 1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재상담 예정 19건, 타기관 안내 14건, 기타 3건, 법적절차 안내 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담 매체유형별로는 일간신문에 대한 상담 건수가 8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 62건, 인터넷신문 50건, 방송 26건, 주간신문 16건, 뉴스통신 7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 교육 현황

위원회는 2011년 5월말 현재 52건의 언론피해 예방 및 구제교육을 실시했다. 대상 기관별로 보면 교육연수기관 16회, 언론사 13회, 인턴ship 프로그램 9회, 대학 5회, 지자체 3회, 공·사기업 1회, 법무 수습교육 1회, 기타 4회 등이다.



위원회 소개

● 언론중재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나요?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제7조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준사법적 독립기구로,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쉽고 빠르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조정·중재 신청을 언론중재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14일 이내에 처리되며, 비용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 신청대상 매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송, 정기간행물(신문, 잡지 등), 뉴스통신, 인터넷 신문, 인터넷 뉴스서비스(포털 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 신청절차

1. 신청기간

조정·중재 신청은 대상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보도가 있은 후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2. 신청인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개인은 물론 일반단체나 회사, 공공기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 언론중재아이넷(<http://people.pac.or.kr>)을 방문하시면 전자적인 방법으로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이용방법과 관련 양식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를 직접 문서로 작성하신 경우 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방문하시어 담당직원에게 신청 내용을 직접 진술하는 방법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담 : 02)397-3000, 3010, 3100, 3110

e-mail : counsel@pac.or.kr

홈페이지 : www.pac.or.kr

트위터 : www.twitter.com/pac_news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 15층

“잘못된 언론보도는
사람과 사람을 멀어지게 합니다”



신문·방송은 물론, 이제는 포털·인터넷 뉴스까지 -
언론중재위원회가 비용 없이 빠르게 해결해드립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을 통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조정·중재신청 접수는 방문이나
우편에 의한 방법 외에 구술, e-mail, 전자문서로도 가능합니다.
접수 후 14일 이내에 처리되며, 비용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신문, 방송은 물론, 개정된 언론중재법으로
이제 포털·인터넷 뉴스까지-
언론중재위원회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국민과 언론을 이어주는-

언론중재위원회

언론피해상담 02)397-3000

이메일상담 counsel@pac.or.kr

온라인상담 http://people.pac.or.kr

이 광고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